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깎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은 이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4월 5일, 19일, 26일 599,000원
 서울시 중랑구 동부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 (02)725-7595 / FAX: (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737-8881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3월 16일(음력2월 7일) 수요일 (주간) 제517호

說禪의 울림, 하늘도 '雪雪'

‘간화선... 설선대법회’ 입제 3천불자 운집

3월 5일 범어사에서

선찰 대본산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 주최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가 3월 5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범어사 주지 자유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1904년 부산지역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3000여명이 보제루와 대웅전 앞마당 금강계단 등 도량을 가득 메웠다. 이날 입제식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설선대법회가 눈 밝은 선지식들의 법문에 목말라하는 대중에게 청량한 감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치사에서 “한국선의 흥중조였던 경허 스님께서 수행하셨던 선찰에서 열리는 설선대법회를 통해 금강같은 신심으로 웅망정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부터 이어질 10대 선사들의 법문은 마음속에 자라는 무명수를 잘라내는 금도끼가 될 것”이라며 법회를 개최한 의의를 전했다.

관련기사 9·24·25면
 범어사=천미희 기자



선(禪)의 울림은 설(雪)이 되어 금강산을 뒤덮었다. 3월 5일 범어사에서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에서 3천여 사부대중은 ‘선문(禪門)’을 열겠다는 일념으로 폭설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사진=고영배 기자

출가 나이 안 묻겠다

조계종 ‘연령제한’ 폐지키로

21일 중앙총회에 상정

승가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던 조계종의 ‘40세 출가연령제한’ 제도가 출가자 감소 등 부작용이 많은 여려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3월 11일 중무회의를 열고 출가연령제한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조계종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2003년 9월 중앙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당시 개정된 교육법은 제55조 1항의 행자교육원 수확자격이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이던 것을 ‘40세 이하

로 강화한 것으로, 종단 내 율원·선원을 비롯해 재가자와 일반사회의 반대 여론이 높지 않았다.

본지 514호 2면 참조·관련기사 4면 그러나 이번 결정이 당장 출가연령제한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르면 21일 열리는 임시 중앙총회에서 출가연령제한 폐지안이 상정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총회 의결을 거쳐 폐지안이 최종 확정된다.

조계종은 현행 승가교육제도와 법제제도가 안정돼 있어 출가연령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용수 기자

#1 충북 옥천군이 ‘도라지 특화사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라지를 옥천의 특산물로 특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꽃길도 조성하는 등 도라지를 옥천의 얼굴로 만들겠다는 차원에서다. 이렇게 옥천군이 도라지 특화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은 바로 옥천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의 ‘제안’ 때문이다.

우연히 어디에서 들었던 도라지 생각이 났다. ‘가꾸기도 쉽고, 꽃도 예쁘고, 수익성도 좋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혜철 스님은 2000년 자신의 사찰에 도라지를 심고 3년 동안 시험 재배를 했다. 그 결과 들었던 대로 수익성도 있고 꽃도 아름답고 재배도 쉽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혜철 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혜철 스님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3월 2일 다시 옥천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옥천군은 제반사항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도라지에 관한 각종 자료를 모으고, 관련 서적도 탐독하는 등 세밀하게 연구했다는 혜철 스님. 스님의 마지막 말이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함

그러던 김씨에게 가문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었다. 20여년 가까이 차를 만들어 온 혜우 스님이 최근 심진각 근처의 폐교를 인수해 ‘혜우 전통떡볶이 재다교육원’을 연다는 것이다. 재다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으로는 최초일 뿐 아니라 더 반가운 것은 교육이 전액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재다교육원장 혜우 스님은 “농민들이 찾았을 생산하는 중간역

어 교육원 개원식을 열게 됐다. 4월부터는 인근 다담, 순천, 광양, 광주 등지의 농민 10여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생들이 생산한 차는 혜우 스님이 품질을 검수하고, 교육원의 이름을 달고 전국 대리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스님은 농민들과 차인들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만을 맡고자 한다. 차를 재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3월 19일 오후 2시 범어사 / 범주: 고우 스님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혜철 스님

농촌경제 활성화에 뛰어든 두 스님

옥천 혜철스님 도라지 특화사업에 ‘희망’ 심어
 순천 혜우스님 차 재배와 재다 병행 수익 증대
“함께 잘 살면 그게 수행이고 포교”



혜우 스님

“IMF 이후 지역 경제는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만큼 사람들이 어려워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성직자이기 이전에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도라지 특화사업’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도라지일까. ‘옥천군의 특화산물로 삼을 만한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남은 2004년 초 옥천군에 ‘도라지 특화 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 해 10월에 군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짧막한 답변뿐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예 과학적이고 세부적인 자료까지 갖춰 군에 제출해야겠다고 결심한 스님은 옥천 농업기술센터, 충북농업기술원, 충북과학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그리고

‘함께 잘 살면 그게 수행이고 포교’라니겠습니까”(043) 732-5560
#2 2년 전부터 차(茶) 농사를 짓고 있는 전남 광양시의 김성현 씨는 재다법을 배운만한 곳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허사였다. 대부분의 재다인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길 꺼리기 때문이다.

할만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워 교육원을 열게 됐다”고 개인 취지를 밝혔다. 찾았을 재배해 직접 가공·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농가의 수익증대와 자립 기반 마련에 더 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님은 4년 전부터 교육원 마련을 준비해왔다.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지난 1월 폐교된 순천 용남초등학교 비룡성교를 인수해 3월 19일 드디어

배하고 가공하고 그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 모두가 농민들의 몫이자 그들의 생활 기반이기 때문이다. 시주로 생활하다 보니 마시는 차라도 직접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것이 어느덧 19년. 제대로 만든 차 한 통이 지역 경제와 국민 건강의 기반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시도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주목된다. (061) 782-1443
 옥천=한명우 / 순천=여수령 기자

‘할’
 햇볕을 받지 못한 물
 햇볕을 받은 물 그것은 환하고 영롱하죠
 그림·조태호
 자유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큰 래 들어 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동 서양을 막론하고 비등한 가운데 특히 한국불교계에는 간화선풍을 바로 계승하고자하는 열의가 뜨겁습니다. 이에 때맞춰 선찰대본산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說禪)대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성철, 용성, 동산, 전강, 고암 대 선사 등 근 현대 대선지식들의 수행가증이 울곧게 살아 있는 범어사에서 이 같은 법회가 열리는 것은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참가 대중에게도 지식인신 건성성찰의 인연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처럼 열리는 설선대법회에 참석하시어 구름에 가려진 마음의 달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제: 문 없는 문을 열다

- 기간: 3월 5일 입제 ~ 5월 7일 퇴원. 매주 토 / 중 10회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범어사 - 보제루 / 부대행사(잠언 등) - 열반전
- 주최: 대안불교 조계종 제 14교구본사 범어사,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대안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산시 불교연임의, 범어사 신도회,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중등문예, 부산시 불교인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부산불교가사협회,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범부신문, 주간불교

- 부대행사
 - 의망가에 인연 진행되는 프로그램
 - 주말 잠선 체험 (토요일 법회 종료 후, 19시 입선 ~ 23시 방선)
 - 전체 법회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전체 경건 참가자에게는 인거증을 나누어 드립니다.
 - 법의 동영상 중계는 beomeosa.co.kr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약은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됩니다.
 - 법의 비디오·카세트 테이프·오디오CD는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동참문의: 범어사 원주실 ☎ 051)508-3636

3월 5일 입제범어 설선대법회의 의의
 자유 대선사(범어사 주지)
 • 법의 법사: 구주 스님 (수좌)
 • 재가 절의사: 권만연(동아대학교 교수)

5월 7일 회향범어 무차선(無遮禪)법회
 진계 대선사(동화사 주지)
 • 법의 법사: 구주 스님 (수좌)
 • 재가 절의사: 권만연(동아대학교 교수)



혜국 스님(의종사 금봉선원)
 • 법의 법사: 설우 스님(법안사 선원)
 • 재가 절의사: 김경호(조계종 국제포교사)



고우 스님(라화사 선덕)
 • 법의 법사: 화랑 스님 (조계종 교학연구원)
 • 재가 절의사: 강동관(동아대학교 교수)



인가 스님(범어사에서 교역선원 유4)
 • 법의 법사: 호암 스님 (수좌)
 • 재가 절의사: 지호경 (부산불교실업인회 겸 사범사 신도회 부회장)



현산 스님(해림사 선동선원)
 • 법의 법사: 종대 스님 (전 태안사 선원)
 • 재가 절의사: 박근호 (전 부산영남대학교장학재단)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 법의 법사: 강승 스님 (전국선원사회 사무처장)
 • 재가 절의사: 최익두(부산범어회)



무어 스님(속서사 선원)
 • 법의 법사: 영일 스님 (수좌)
 • 재가 절의사: 이대원(선(안동모임 명예회장) 부산불교실업인회경 영명초사 사장)



원웅 스님(해인총림 수좌)
 • 법의 법사: 홍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 비구니 선장)
 • 재가 절의사: 김홍원 (부산불교실업인회경 영명초사 사장)



정광 스님(명암사 태고선원)
 • 법의 법사: 지현 스님 (승사 승려)
 • 재가 절의사: 설문근(부산시 교육국)